

그리스인 조르바

카잔차키스

이승헌

니체와 시대상을 중점적으로



Table of Contents

I. 카잔차키스

- 일생 & 시대상
- 가치관

II. 니체

- 소개
- 주요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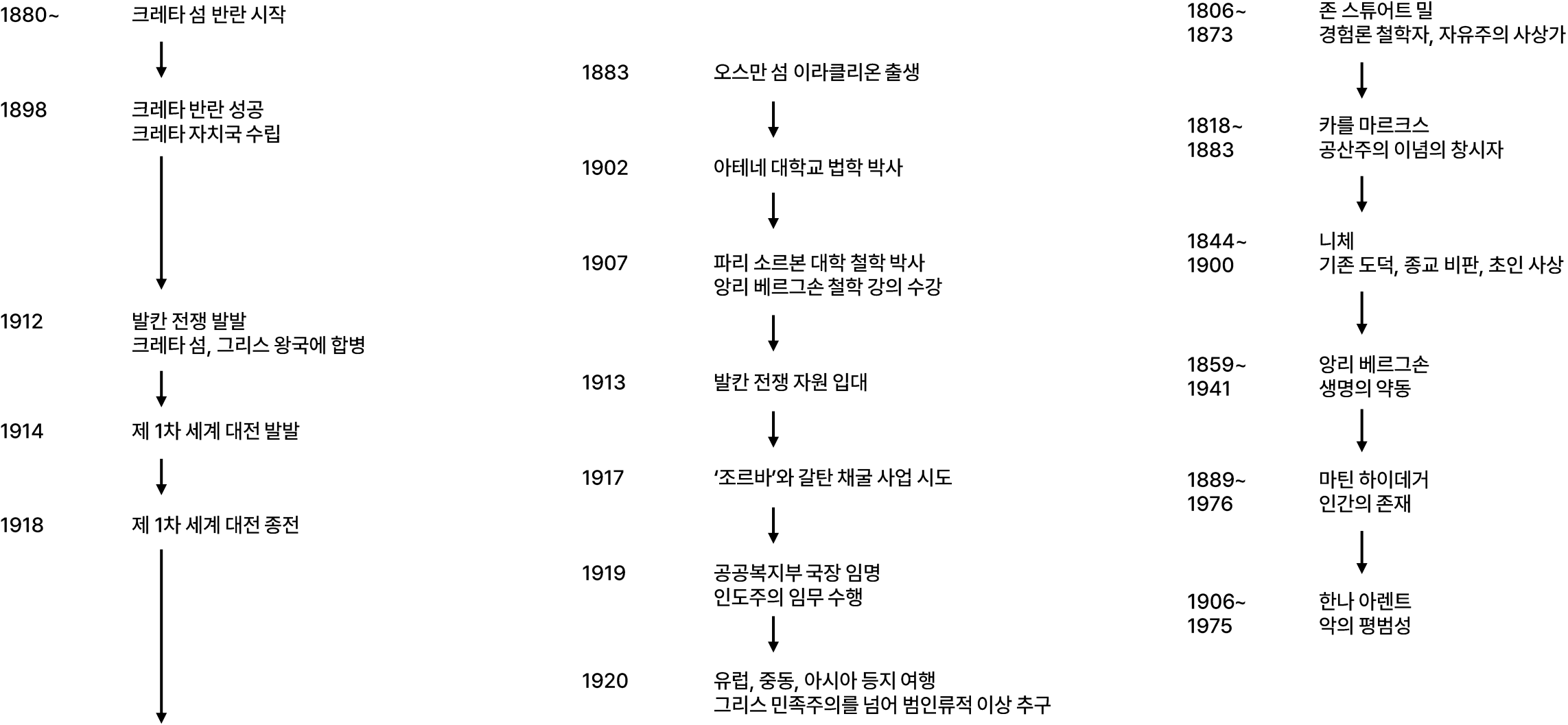
III. 인물

- '나'
- 조르바
- 오르탕스 부인
- 그 외

IV. 토론

카잔차키스 - 일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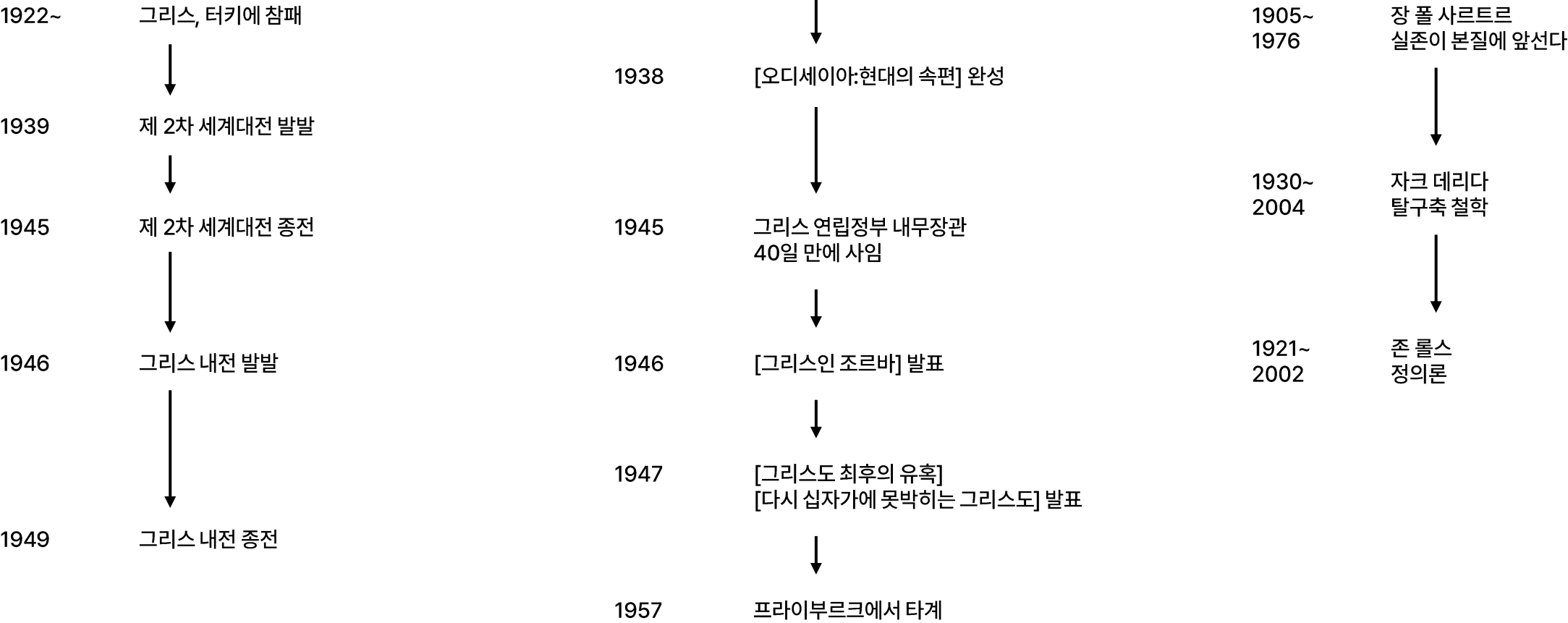
연도별 정리^[1]



[1]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기여자 (2007). 그리스의 소설가 (1883–1957). [online] Wikipedia.org. Available at: https://ko.wikipedia.org/wiki/%EB%8B%88%EC%BD%94%EC%8A%A4_%EC%B9%B4%EC%9E%94%EC%B0%A8%ED%82%A4%EC%8A%A4 [Accessed 25 Jul. 2025].

카잔차키스 - 일생

연도별 정리



“내 안에 한 점 두려움도 없고 한 점 희망도 없다. 나는 자유롭다”

카잔차키스 – 가치관

무엇이 그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는가

니체^[2]

전통적 가치의 전복과 새로운 가치 창조

니체가 선언한 “신은 죽었다”는 말이 의미하듯 기존의 종교적 도덕이 무너진 시대에, 인간은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통찰이 카잔차키스에 깊이 각인된다.

니체 철학의 핵심 초인 사상(Übermensch) 두려움과 죄책에 얽매인 노예 도덕을 넘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인간상은 [그리스인 조르바] 주제에 크게 반영된다.

베르그손

우주와 생명을 정적인 존재가 아닌, 역동적 생성 과정으로 파악, 물질에 맞서는 생명의 비약을 강조

창조적 진화 사상은 저자에게 인간 영혼의 창조적 에너지와 삶의 역동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심어준다. 카잔차키스는 인간 정신의 지속적 발전과 상승을 믿었고, 현실의 고통과 싸우며 끊임없이 자아를 초월하려는 인간상을 작품에 담았다.

베르그손 철학이 강조하는 창조적 충동과 직관의 지혜는, 지식인 ‘나’와 대비되는 조르바의 삶을 통해 선명히 드러난다.

불교 및 동양 사상, 메토이소노^[3]

무상(無常)과 집착으로부터의 해탈 사상

카잔차키스는 동서양의 사상을 접목시켜 고통과 허무를 인정하되 그것을 긍정으로 승화시키는 독자적인 구원관을 발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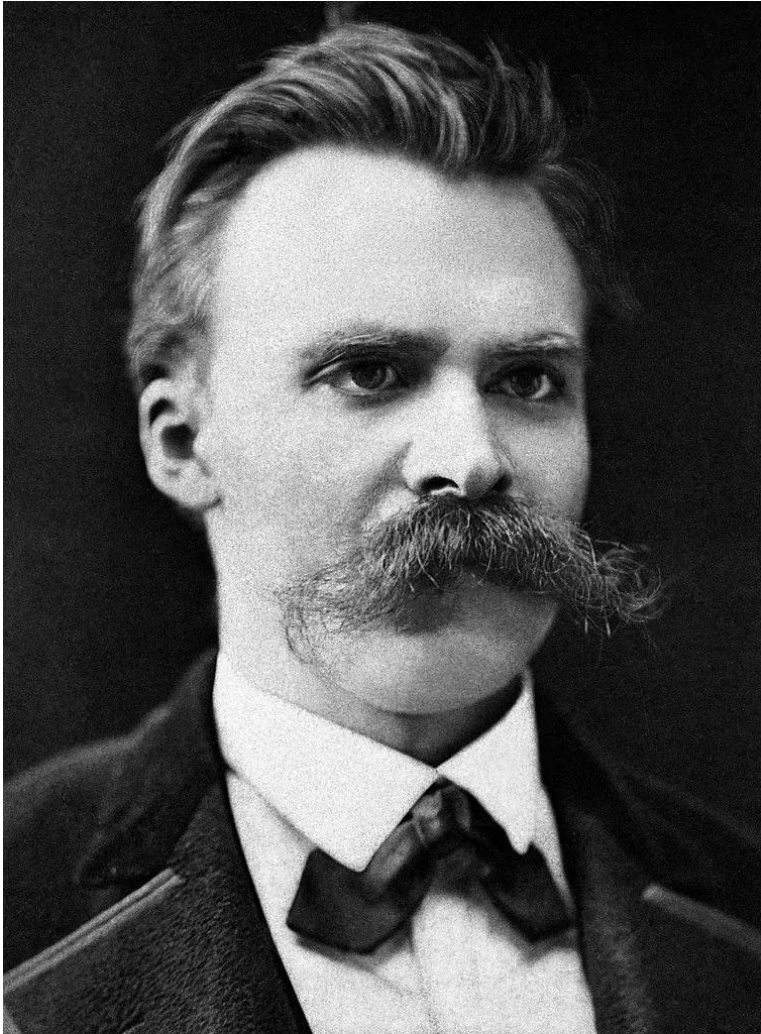
카잔차키스는 불교의 무집착과 고(苦)의 자각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이 삶의 의욕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르바를 통해 웃음과 춤으로 번뇌를 안고 가는 길을 제시한다.

[2] Kazantzakis. (2016). Nikos Kazantzakis | Kazantzakis. [online] Available at: <https://www.nikoskazantzakisestate.org/nikos-kazantzakis> [Accessed 25 Jul. 2025].

[3] 김지나 (2016). 야성의 현자(賢者), 조르바. [online] Brunch Story. Available at: <https://brunch.co.kr/@jinakim6als/11> [Accessed 25 Jul. 2025].

니체 - 소개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기 전 알아야 할 철학자



Friedrich Wilhelm Nietzsche^[4]

전통적인 도덕과 종교를 급진적으로 비판하고,
새로운 인간상과 가치 창조를 제창한 현대 철학의 혁명가
철저한 허무주의의 진단자이자 그것을 극복하려 한 사상가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다.

플라톤 이래 이어져온 형이상학적 전통과 기독교적 도덕을 뒤집어엮은 망치의 철학자로 불린다.
그는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으로 근대에 전통 가치의 몰락을 알렸으며,
진리나 도덕의 절대적 기반이 사라진 허무주의 시대를 예견했다.

[4] Wikipedia. (2022). Nikos Kazantzakis. [online] Available at: https://en.wikipedia.org/wiki/Nikos_Kazantzakis.

니체 – 주요 용어

니체를 알기 위해 알아보아야 할 용어

권력에의 의지^[5]

니체는 인간과 생명의 밑바탕에 삶을 확장하고자 하는 힘의 충동이 있다고 보았다. 이 권력의지는 단순한 정치권력 추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극복하여 보다 높은 형태의 존재로 나아가려는 내적 추진력이다. 예를 들어 예술가의 창작욕, 사상의 혁신 추구, 심지어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까지 모두 권력의지의 발현으로 해석했다.

초인(Übermensch) 사상^[5]

니체가 제시한 이상적 인간상인 초인은 무너진 가치 위에서 자기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을 의미. 초인은 더 이상 기존의 선악 기준이나 군중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삶의 법칙을 세우고 따르는 자율적 인간. 전통적 신앙이 사라져버린 세계에서 삶은 무의미하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그렇다면 내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겠다며 운명을 사랑(amor fati)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초인

허무주의(니힐리즘)^[5]

니체가 평생 싸운 대상은 허무주의, 즉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너진 상태였다. 그는 전통적인 신과 도덕이 붕괴한 뒤 찾아온 가치의 진공상태를 언급하며, 잘못 대처하면 수동적 허무주의(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무기력해짐)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대신 적극적 허무주의, 곧 낡은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허무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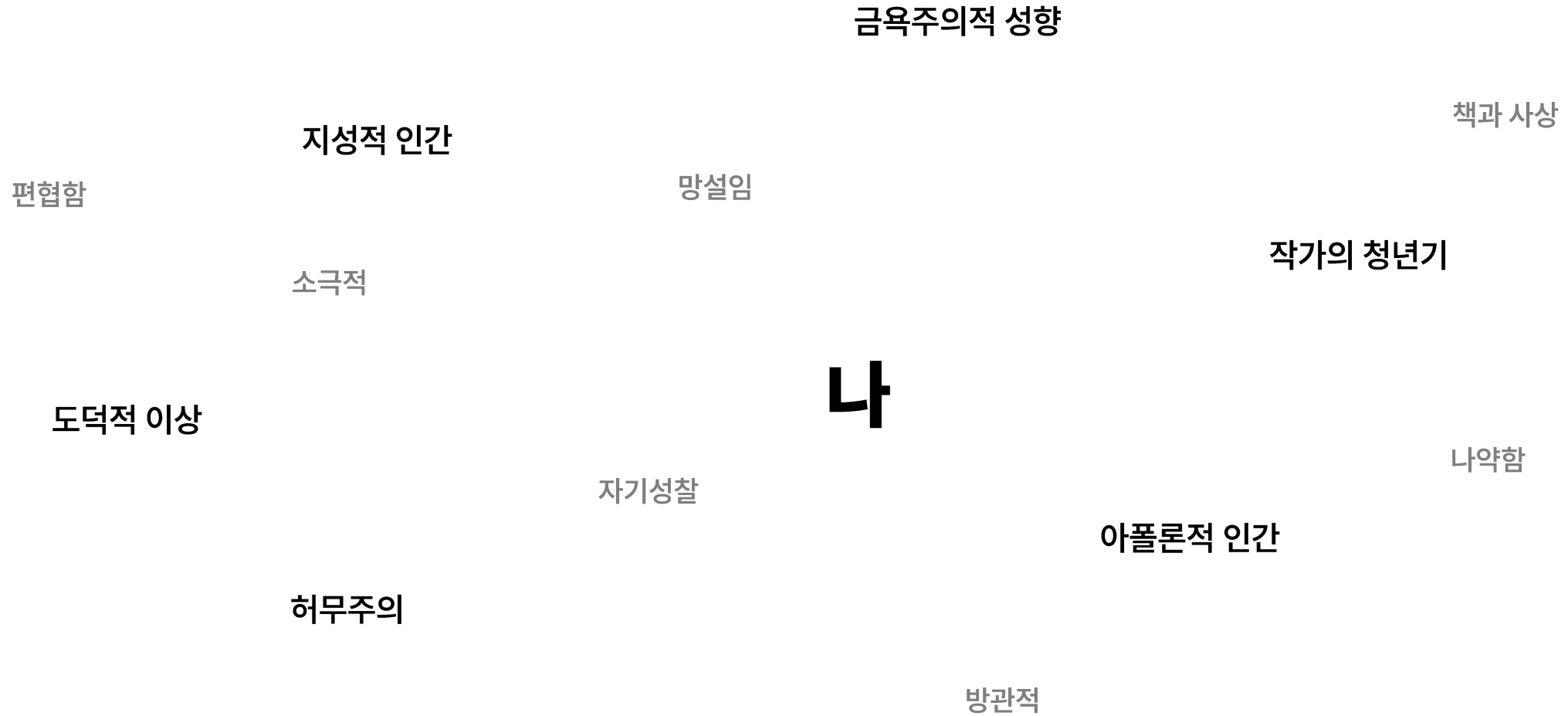
영원회귀^[5]

지금 이 순간의 내 삶이 앞으로도 무한히 반복된다 해도 그것을 긍정할 수 있는가라는 실존적 시험이다. 그는 이 사상을 통해 삶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태도를 강조했다. 영원회귀 사상은 단순히 시간 반복 이론이 아니라 현재 순간의 무한한 깊이를 깨닫는 통찰이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두 주인공은 비록 헤어지지만, 공유한 순간들은 영원히 반복되어 서로의 가슴에 살아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는 독자에게도 당신의 현재를 영원히 반복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인 조르바]는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을 문학적으로 체험케 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5] COMPARATIVE STUDY OF THE NOVELS ZORBA THE GREEK AND SIDDHARTHA BASED ON THE PHILOSOPHY OF LIFE. (2025). Granthaalayahpublication.org. [online] doi:https://doi.org/10.29121/granthaalayah.v13.i4ISMER.2025.6082.

인물 - '나'

'나'는 누구를 대변하는 인물인가



인물 - '나'

'나' 는 누구를 대변하는 인물인가

아폴론적 인간

이성, 조화, 관조의 인간
화자는 늘 머리로 세상을 해석하고 계획하며, 감정의 분출이나 충동적 행동을 경계한다.
금욕주의적 성향도 갖춰, 젊은 과부를 향한 욕망이 생겨도 그것을 억누르려 밤새 붓다 원고 집필에 몰두한다.
화자가 조르바와 대화를 나누며 성장하는 모습은 **지식인이 현실 속에서 재교육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성적 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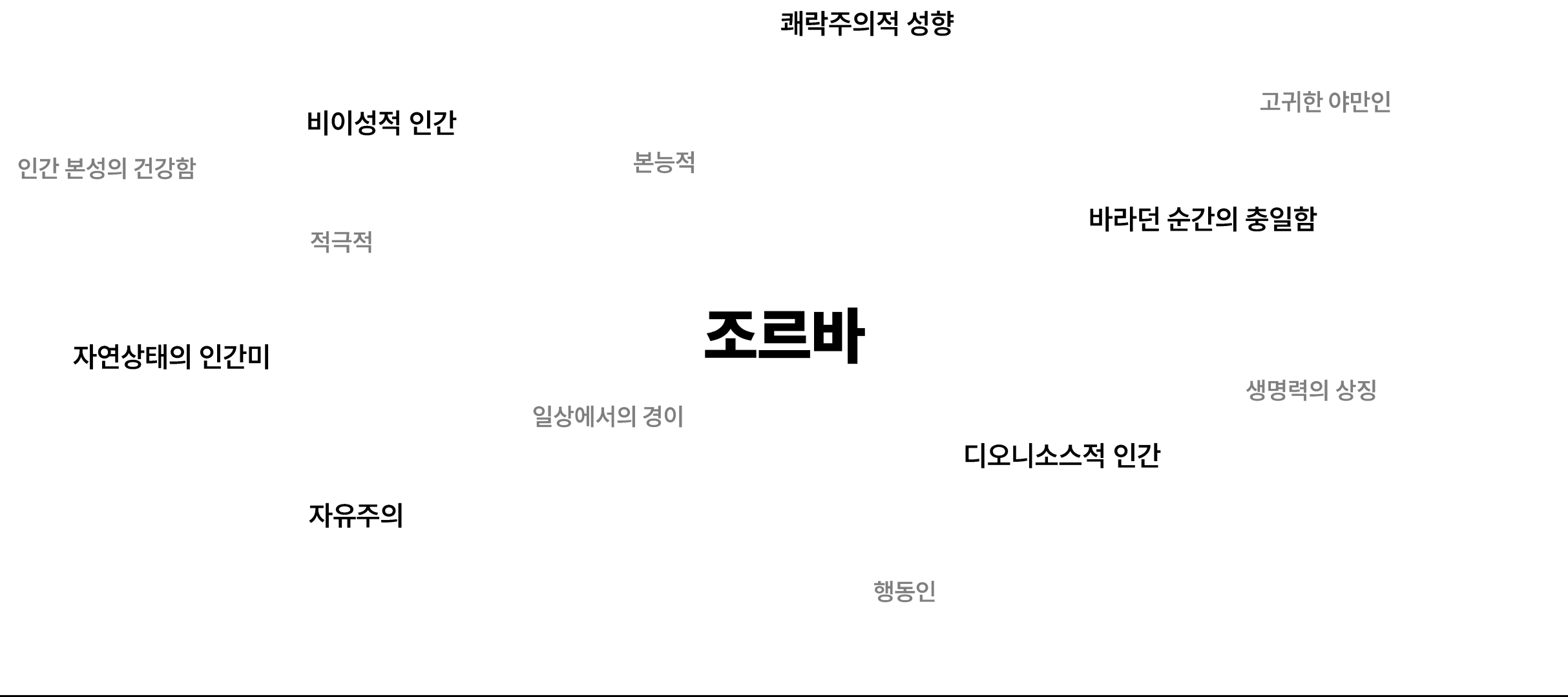
도덕, 양심, 이상주의를 대표
조르바를 통해 자신 안의 위선과 두려움을 발견한다.
그는 과부를 향한 부당함에 분노했지만, 군중 앞에 몸을 내던질 용기는 없었다.
결국 조르바만이 과부를 지키려 싸우다 부상을 당하고, **화자는 어둠 속에서 떨어져 인간의 잔혹함과 자기 무력에 몸서리친다.**

작가 자신의 영혼 여정

아폴론적 요소와 디오니소스적 요소의 통합
조르바와 헤어졌지만, 그 정신을 글로 기록함으로써 영원히 함께할 수 있었다.
이는 **이성(글)과 감성(삶)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성적 인간의 자기 극복의 의미를 갖는다.

인물 - 조르바

조르바는 누구를 대변하는 인물인가



인물 - 조르바

조르바는 누구를 대변하는 인물인가

디오니소스적 인간

본능, 쾌락, 예술, 비이성의 가치를 체현한 인물이다.
젊어서는 반란군으로 싸웠고, 여러 나라를 떠돌며 광부·목수·선원 등 온갖 일을 했으며, 술한 여자와 사랑을 나누었다고 한다.
충동적이며, 천진하고 정열적이다.
그는 매사에 스스로 없고 규칙을 싫어하며, 오늘을 즐기는 데 거침이 없다.

자유와 자연, 본능의 긍정

포도주와 춤을 사랑하고, 노래와 우정을 인생의 최고 축복으로 여긴다
강자 앞에 비굴하지 않고, 약자 앞에 당당하면서도 따뜻한 인물이다.
무학이지만 지혜롭고, 거칠지만 인정이 많다.
마을 사람들이 오르탕스 부인을 비웃을 때 조르바는 그녀를 부불리나 대장이라 부르며 공경을 표한다.
그는 사회의 금기와 인습을 깨부수고, 인간 본성의 건강함을 보여준다.
니체 철학에서 말한 디오니소스적 예스-세이어(Yes-Sayer)가 조르바에게서 구현된 것이다.

인간 자유와 생명력의 상징

그는 사회 규범과 도덕의 틀 밖에서 살지만, 비도덕적 인간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문명 사회가 잃은 것들(솔직함, 용기, 정열, 연대)의 화신이다.
그의 도덕은 전통 도덕과 다를 뿐, 원칙이 있다.
그것은 삶을 사랑하고, 순간을 살며, 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다.
철저히 인간적이기에 영웅적인 인물이다.

인물 - 오르탕스 부인

오르탕스 부인은 누구를 대변하는 인물인가

도덕적 진공 상태의 표상

공동체의 냉혹성

비이성적 인간

속정이 많고 외로움

허영적

식민 권력의 퇴폐적 측면

감상적

사랑과 아름다움의 덧없음

오르탕스 부인

생명력의 상징

에로스의 상징

낭만과 식민의 잔영

비극적 운명

행동인

인물 - 오르탕스 부인

오르탕스 부인은 누구를 대변하는 인물인가

낭만과 식민의 잔영

오르탕스 부인은 젊은 시절 대단한 미인이었고, 그 미모로 열강 함대 제독들을 유혹해 자신의 애인으로 만들었던 과거를 자랑한다. 그녀 스스로를 크레타를 구한 영웅 부불리나에 빗대는데, 조르바는 장단을 맞춰 그녀를 부불리나 대장이라고 추켜세운다. 그녀는 열강 제독들과의 추억을 네 제독들의 수염과 향수 냄새 등 디테일까지 묘사하며 자랑하지만, 그것은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 여성 사이의 권력관계를 은폐한 낭만화**다. 결국 그녀 자신도 한낱 즐거움의 상징이었을 뿐 버려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점을 알기에 그녀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녀의 죽음에 사람들이 몰려가 남은 물건을 약탈하는 것은, **식민 권력의 그림자가 사라진 후 남은 공허함과 도덕적 진공 상태**를 보여준다

에로스의 상징

여성으로서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끝까지 간직했다. 이는 성에 억압적이었던 전통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던 측면이다. 늙은 여자가 무슨 사랑이라는 편견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다 웃음거리가 되었다. **인간의 성적 욕망과 애정 욕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녀의 앵무새가 마지막에 “안녕, 아름다운 사랑” 같은 말을 반복하는 장면에서, 아름다운 사랑은 지나가고 없는데, 그 메아리만 앵무새처럼 남은 것을 통해 **낭만적 사랑의 허무**를 암시한다.

주체적 자부심

프랑스에서 멀리 떠나와 크레타 같은 외진 섬에 눌러앉은 것도 그녀 나름의 결단이고, 제독들을 홀려 크레타를 지켰다는 것도 진실이 아닐지라도 그녀의 주체적 자부심을 보여준다. 또한 죽기 전까지 조르바에게 “약속 지켜줘요”라며 결혼식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 속에는 인생 끝자락이라도 정식 아내로서 존엄을 얻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인물 - 그 외

그 외 사람들은 각각 무엇을 대변하는 인물들인가

젊은 과부

마을 청년들에게 선망과 질시를 동시에 받는다

그녀는 남성의 성적 판타지와 여성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공동체는 그녀의 자유로운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여긴다. 몰지각한 군중은 그녀의 출현을 도발로 받아들이고, 성역에서 집단 살인을 저지른다.

이를 통해 **전통적 집단 정의관의 잔인성을 폭로**한다.

구조에 실패하는 장면에서, **개인의 선의만으로 구조적 폭력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크레타의 마을 사람들

군중 심리와 인간 군상의 축소판

인정 많고 전통적인 삶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잔인하고 맹목적인 폭력성**(마브란도니, 미미코, 수도원장 등의 사례)을 내포한다.

마을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니체가 말한 **'떼와 무리'**에 해당한다.

개별로 있을 땐 선하거나 적어도 악하지 않지만, 집단으로 행동할 때 비이성적 집합이다.

카잔차키스는 민중의 열망(자유를 위한 투쟁)을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그들의 잔혹성과 무지에도 절망했다.

작품 속 마을 공동체는 그 두 측면을 다 보여준다.

토론

무엇을 얘기해보면 좋을까

1. 즉흥적이고 감각적으로 사는 삶과 지식인 '나'처럼 성찰하고 계획하는 삶 중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보다, 젊어서 여행을 다니고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사는 삶
vs 늙어서는 절대 고생하지 않기 위해 젊어서는 무조건 참고 저축하고 아끼는 삶

2. 카잔차키스가 조르바를 통해 보여준 개인적 양심의 힘은 현실에서도 유효한가?

인간은 개인적 양심의 힘에 자율적인 도덕 창조를 맡길 수 있는가

3. 비이성적 민중 행동이 초래한 피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집단적 폭력이 빚은 비극에 대한 책임 귀속은 개인에게 있는가, 집단/민족에게 있는가?
Ex) 독일의 집단유죄 논쟁(죄는 나치당원 개인의 것인가, 독일 민족 전체의 것인가)

4. 계몽되지 못한 민중의 무지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엘리트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는 이들의 이탈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엘리트에게도 행복 추구와 이동의 권리가 있다(헌법적 기본권)이나, 엘리트는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상응해 봉사할 책임이 있다(사회계약론)냐의 대립

5. 민주주의 안에서 표출되는 다수의 광기(무지·폭력·정의 왜곡)는 제도적·교육적 개선으로 교정 가능한 현상인가, 인간 사회의 구조적 한계인가?

구조적 한계라면, 니체가 제시한 초인(Übermensch, 소수의 창조적·파괴적 주체)이 다수의 폭력성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세울 정당성을 갖는가?